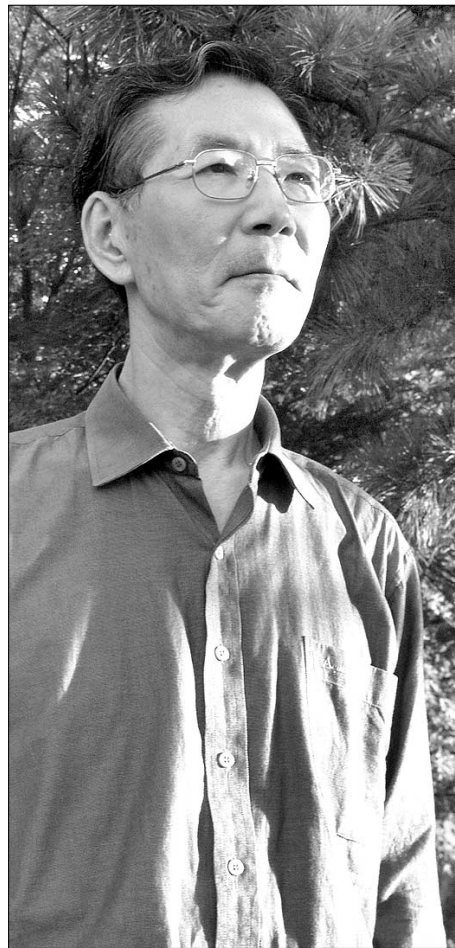


존재론적 마음혁명 제시한 원효 스님



원효의 대승철학
김형효 지음
소나무 | 2만원

한국을 대표하는 철학자 가운데 한사람인 김형효 교수가 한국 사상사에서 가장 빼어난 봉우리인 원효 스님의 철학에 도전했다.

김형효 교수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을 정년퇴직하며 대미를 장식하는 논문주제로, 명성에 비해 실제 철학적 내용이 별로 알려지지 않은 원효 대사를 선택한 것.

김교수가 발간한 <원효의 대승철학>은 <금강삼매경론>과 <대승기신론 소·별기>를 텍스트의 두 중심축으로 삼아, 원효 사상의 철학적 구조를 규명한 것이다.

김 교수는 원효의 대승사상을 철학적으로 밝히면서 그의 사유가 마음의 혁명, 즉 존재론적인 혁명의 길을 닦은 것으로 설명하려 한다. 그것은 그동안 인류가 마음의 존재론적 혁명을 무시하고 오직 세상을 새로 수리하려는 소

유론적 혁명에 탐닉했던 것을 비판하고, 존재론적 혁명이 하이데거가 말한 철학의 종말임과 동시에 미래적 사유의 도래를 말하는 것.

김 교수는 “원효의 대승사상이 1400년 전에 있었던 낡은 철학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원효의 저작들은 인류의 본원적 고민과 질문에 대한 빼어난 철학적 성찰”이며 “원효의 대승철학은 21세기에 유효하다. 아니 오히려 21세기 인류의 갈구에 답한 오래된 미래

금강삼매경론 · 대승기신론 바탕

원효 사상의 철학적 구조 규명

“無私와 至公은 대승 사고방식”

의 철학”이라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김 교수가 강조하는 원효가 신라 사회에 보여주려고 한 사고방식은?

김 교수는 “원효사상의 특징은 형식적이고 주관적인 경직된 태도인 교주주의에 얽매인 사고방식의 파괴에 있다”며 “제사사를 어떤 가치의 집착으로 얽매이게 하는 것은 곧 무애원용(無碍圓融)한 사고방식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므로 원효는 지도층에게 일체의 사심(私心)을 갖지 말고 공공(公共)한 마음으로 세상을 공평 무사하게 대할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한다.

원효가 대승사상을 강조한 이유는?

김 교수는 “원효가 현실 역사에서 늘 순수주의라는 도덕적 명분으로 현실의 벽을 쌓는 것을 경계했다”고 설명한다. 즉 “현실을 연기법적으로 보지 않고 늘 나와 남을 이분법적으로 갈라놓아 변증법적 투쟁을 강화시킨다.”고 김 교수는 “현실을 두루두루 안고 포괄하려는 입장보다 오히려 현실을 적과 동지로 나누어 투쟁하는 사고방식에 마음이 오염되어 있다. 이것을 원효가 거부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김 교수는 “인간은 물질적 경제와 정신적 도덕을 모두 갖추어야 생활할 수 있는 사실적 존재이므로, 어느 하나가 부실하면 행복할 수 없다”며 “원효 사상에서 미려를 여는 존재론적 사유와 사실주의적 세상보기를 만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김 교수는 “원효가 대승사상을 정리하면서 대승사상이 무사(無私, 심리적 마음가짐)와 지공(至公, 사회적 마음가짐)의 두 축으로 짜집기를 시도한 것 같다”고 말한다.

그는 “대승사상은 일반 백성들을 대승의 차원으로 통합하기 위하여 지도층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무사하고 지공한 마음가짐과 사고방식으로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 무사와 지공은 대승의 사고방식이라고 불러도 괜찮을 것 같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종교는 달라도 우리 심장은 함께 뛰었다”

삼소회의 세계 성지순례기

모든 종교의 궁극적인 가르침은 무엇일까?

바로 이고득락(離苦得樂)이다. 즉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는 데 있다는 얘기다.

고통은 서로 생각이 맞지 않는에서 출발하고 행복은 서로 마음이 통할 때 찾아온다.

종교와 생각이 다르고, 머리 모양도 제각각이지만 수도자로 살아가며 평화롭고 다툼이 없는 세상을 바라는

가톨릭, 불교, 성공회, 원불교의 여성수도자 모임인 삼소회 회원들이 종교간의 화합과 세계평화를 기원하며 세계 종교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순례단이 다녀온 곳은 전남 영광의 원불교 성지, 인도 바라나시의 녹야원, 부다가야의 석가모니 대각지, 델리 찬디초코, 영국 캔터베리 대성당, 런던 이슬람 중앙 성원, 이스라엘 그리스도교 성지와 이슬람 성지, 이탈리아 아시시, 바티칸 교황청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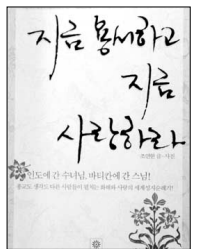
삼소회의 세계 종교 성지순례여행을 기록한 책 <지금 옹서하고 지금 사랑하라>는 한겨레신문 조연현 기자가 동행해 19일 동안의 기록을 정리한 것이다.

저자는 순례의 여정을 따라가며 수도자들의 끈끈한 연대와 우정, 숨겨진 일상과 유쾌한 대화, 서로 다른 신앙에서 비롯된 이쁨을 가감없이 기록했다.

여성 수도자들의 순례는 세상에서 가장 여성적이고 위태로운 것 같던 여행이었다. 하지만 4대종교 성지자들은 스스로 세상에서 가장 유쾌하고 아름다운 여행으로 만들었다. 인도에 간 수녀, 바티칸에 간 스님이 한결같이 “종교는 달라도 우리의 심장은 함께 뛰고 있습니다”고 외침에서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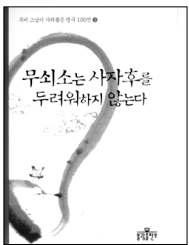
삼소회원들의 여행은 출발할 무렵부터 쉽지 않아 보였다. 상대방 종교의 전통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생각처럼 말처럼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음의 빗장을 열고 상대 종교를 배워 나가며 인간적인 교감을 나눈 순례단은 ‘옹서는 자신에게 베푸는 최고의 자선, 사랑은 상대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김원우 기자



지금 옹서하고
지금 사랑하라
조연현 지음
비채 | 1만9000원

무비 스님이 가려뽑은 名句 시리즈



영축산에서 꽃을 든 것은 상근이에게 보인 것이다.
물에 뜬 나무가 늘 먼 거북을 만난 것과 어찌 같겠는가.
음광 존자가 가만히 미소하지 않았더라면
무한한 맑은 향기를 누구에게 주었으랴.

<선문염송> 중에서

무쇠소는 사자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비스님 지음 | 불광 | 9000원

한국불교 전통가객을 잇고 있는 前 조계종 교 육원장 무비 스님(법어사 승가대학 학장)은 <선문염송>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불교의 선법은 한송이 꽃에서 출발했다. 영축산에서 범천왕이 세존에게 설법을 청하며 연꽃을 바치자 세존은 연꽃을 들어 대중들에게 보였다.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으나 가섭존자만 침묵을 깨닫고 미소를 지었다. 이에 세존은 가섭존자에게 “정법을 깨달은 눈과 열반을 체득한 묘한 마음이 있다. 이것을 가섭존자에게 부촉하노라”고 한에서 유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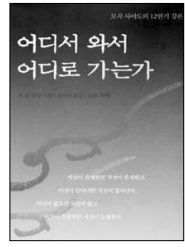
무비 스님이 가려뽑은 명구 100선 시리즈 제 3

집 <무쇠소는 사자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1부 한 물건도 없다. 2부 무쇠소는 사자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3부 남자는 남자며 여자는 여자다. 4부 한 주먹에 철용성을 무너뜨려라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책은 팔만사천법문에 달하는 불법의 요체를 온전히 이해하기 바쁜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추렸다. 그러다간 간단한 명구를 읽고, 명쾌한 해설을 덧붙였다.

무비 스님은 “일상생활 틈틈이 이 작은 책을 거울삼아 혼탁한 마음을 비취본다면, 어느새 지혜와 해탈, 대 자유, 대 평화, 완전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걷고 있음을 자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곡 사야도의 12연기 강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 탄 다잉
조명익
행복한솔
1만5000원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라는 조건에 의해 일어난다. 또 생겨났으면 결국 언젠가는 사라진다. 이 것이 불교의 핵심교리인 연기법이다. 연기법은 부처님에 의해 처음으로 밝혀진 뒤에 어느 누구로부터도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완전한 법칙이다.

이 연기적 구조에 의해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법이 위빠사나이다. 그래서 연기법이 없는 위빠사나 수행은 할 수가 없다. 역대의 많은 선지식은 연기법과 사뻐쳐 위빠사나 수행을 통하여 진리를 깨달았다.

연기법을 알아야 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잘못된 견해를 제거하는데 있다.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이해하지 못하면 영원히 무지 속에서 헤어나 수가 없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는 모곡 사야도(Maha Thera Mogok Sayadaw, 1899-1962)의 12연기법과 위빠사나 수행에 대한 법문을 모곡센터 위빠사나 보급회 회장인 우 탄 다잉(U Than Daing)이 정리하여 펴낸 것이다.

모곡 사야도는 미얀마의 대학자이면서 위빠사나 수행까지 겸한 위대한 장로였다. 사야도는 어느날 문득 자신이 소를 몰고 가면서 한 번도 소에서 짠 우유를 마셔보지 못한 목동에 비유하며 위빠사나 수행에 정진했다고 한다. 그는 이후 미얀마 만달레이에서 11km 가량 떨어진 아마라푸라의 민구라 락의 사원에서 비구들을 상대로 아비담마(abbhidhamma) 강의를 30년간 했다.

영터리 빙의 이야기가 난무하는 시대에 전하는 따끔한 일침!!!

“빙의 사전 제대로 알아!”



지은이/ 일광(逸廣)
신국판/ 312쪽 / 9,500원

무당이 되기 전에 앓는 신병(神病)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
무당하기 싫은 분,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신경통이나 좌골신경통으로 오래동안 고생하시는 분,
스님이나 무당으로부터 귀신이 몸에 있다고 하여 고민하시는 분은 반드시 이 책을 읽고 상담하여 주세요.

- 출생의 비밀 유회는 왜 하는가?
- 여성상위시대와 빙하기는 왜 오는가?
- 150년후 일본은 침몰하고 없어진다!
- 전국에서 이름있는 도사를 모셔 조상의 묘를 썼는데 왜 발복이 없는가?

서울출판 Tel. 02-313-5047 Fax 02-393-9696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

다시보는 新 양택풍수실기론

최고의 주택에서 삶이 풍요로워지고 큰인물이 난다!
새로운 건축 인테리어는 이렇게 한다.

훌륭한 건물과 이상적인 주택

풍수지리는 엄연히 음택론(陰宅論)과 양택론(陽宅論)의 두 분야로 성립되어져 있다. 근래에 와서 중앙은 물론 서구 등에서도 양택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는 것은, 양택이 오늘날의 ‘훌륭한 건축물’을 뜻할 뿐만 아니라, 사무실이나 관공서, 기념 건축물들과 함께 자기 자신이 매일같이 숙식을 하고 생활을 하는 주거공간인 ‘집’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모든 민방은 음수 주택이 길하면 사람도 길하고, 주택이 흉하면 곧 사람도 흉해진다.
- 주택 양택삼음 64괘로 볼 수 있다.
- 이시범 자세히 설명

한국풍수지리 연구원장 김석주 지음 / 신국판 / 424쪽 / 정가 25,000원

미래 사주학 핵심정리 그림 당사주 대전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적천수 형의(上·下)
사륙배판/이선종 지음/25,000원 4x6배판/이선일, 전호일 공저/25,000원 신국판/양정민/김성진 지음/30,000원 신국판/양정민/공유서 지음/4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강박관 편지 / 신국판 / 양정민 / 값 50,000원

송월스님의 개정증보판 드디어 출간!

新사주학 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사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까지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롭게 하늘의 기쁨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기쁨을 밝힐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송월 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정민 / 817쪽 / 정가 50,000원